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무꺼/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났다.”(‘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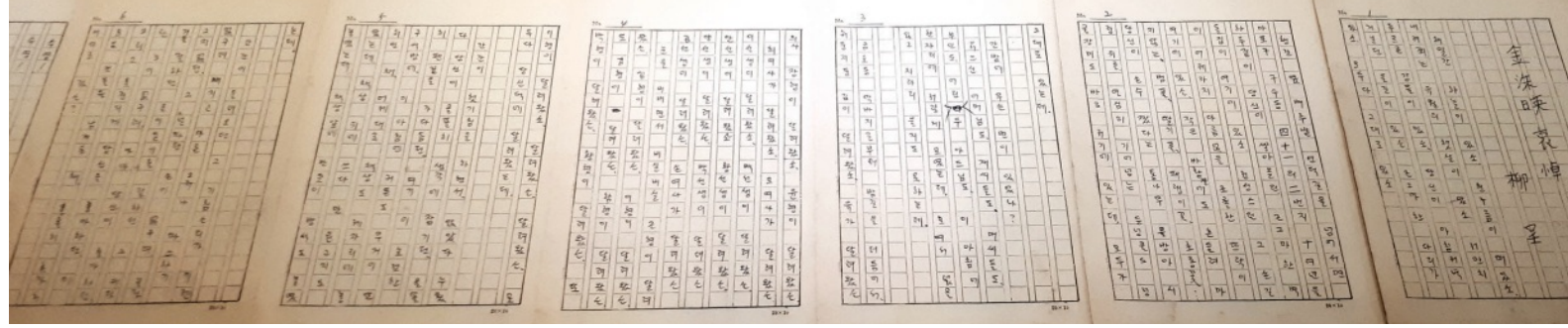
‘탄생 100년’ 김수영 시인 삶과 문학 속으로

기념사업회 창립, 詩 정신 계승 유튜브 시국악 공연·명사 강연 인문서 ‘길 위의 김수영’ 출간

우리 현대문학사에 빛나는 시인으로 김소월, 정지용, 백석 등을 꼽을 수 있다. 김소월은 전통시의 울격의 아름다움을 지향했다. 정지용은 회화적인 언어 감각이 남달랐다. 비록 ‘친일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신화적, 탐미적 언어를 구사했던 서정시 시인이다. 백석 시인은 토속적 언어에 우리의 정서를 심미적으로 노래해 많은 시인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위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인이 바로 김수영(1921~1968)이다. 김수영의 문학적 자장은 오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후세대에 의해 소환된다. 작품이 지닌 의미와 시대성이 당대를 넘어 여전히 현재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불어 김수영은 가장 시적인 삶을 살았던 문인이었다. 시와 함께 살았고 시와 함께 투쟁했으며



서울 김수영문학관에는 문우 유정의 추모문 ‘김수영 애도’를 비롯해 김수영 관련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결국엔 시처럼 생을 마감했다. 그는 불의한 시대와 타협할 줄 몰랐다. 아니 타협하지 않고 옳은게 자신의 목소리를 작품으로 구현했다.

김수영 탄생 100주년(11월 27일)을 맞아 그의 문학과 삶을 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100주년 기념전,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시(詩)국악 공연, 명사 초청 강연을 비롯해 100주년을 기념하는 책이 발간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탄생 100돌을 맞아 김수영기념사업회 창립하는 등 김수영 삶과 문학을 다각도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 12일 출범한 기념사업회는 ‘김수영 마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김수영 시인의 문학과 삶을 담은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중이 김수영 문학을 더 가까이 접하고 향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 초대 대표는 정희성 시인이 맡았다. 1981년 제1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정 대표는 올곧은 시를 썼던 김수영 시인의 시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5층에서는 기념전도 열린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탄생 100주년 기념전 ‘아 김수영’을 기획하고 추진한 이는 김발렌티노 씨다. 김수영을 좋아하는 문학청년이었던 그를 비롯해 박재동 화백 등이 모두 25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김수영의 초기 시는 모더니즘과 관련한 작품이 많았다. 이후 그는 현실의 부조리와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는 참여시인으로 변한다.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외쳤던 그는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시작은(詩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뱀’으로 하는 것이다. ‘뱀’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의 삶과 사유, 시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강연과 시국악 공연을 담은 유튜브도 김수영 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100주년을

기념해 문학관이 황동규 시인과 유성호 평론가를 초청해 연 ‘명사와의 대화’는 김수영에 대한 작품과 삶의 면모 등을 담았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詩) 국악 공연도 있다. 도봉문화재단이 마련한 공연에서는 이음예술단의 ‘자유와 사랑의 변주곡’을 만날 수 있다. 시와 국악의 융합은 김수영의 문학을 폭넓게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아울러 문학관이 평론가 유성호를 초청해 열었던 강연도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다시 보는 김수영 시인-모더니즘의 승리”는 김수영을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치열하게 한 시대를 살았던 시인의 삶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책도 관심을 끈다.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장인 홍기원이 펴낸 ‘길 위의 김수영’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시인의 행적 전반을 취재해 쓴 책이다. 저자는 김수영의 삶을 드러내는 장치로 ‘길’과 ‘장소’를 선택해 시인의 삶의 빛과 그림자를 쫓았다.

저자는 “시인이 원했던 사회는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런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사회였다. 그래서 언론 자유를 외쳤다”며 “백 퍼센트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김수영 시인 자신의 일상적 삶의 자세는 솔직한 글쓰기였다”고 평한다.

이밖에 김수영 50주기 기념 학술 논문집 ‘50년 후의 시인-김수영과 21세기’도 오늘도 뜨겁게 살아있는 시인 김수영을 만나는 의미 있는 책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GB작가스튜디오탐방 26일 정정하 작가 작업실

(재)광주비엔날레는 올해 세 번째 GB작가스튜디오탐방으로 정정하 작가를 만난다.

이번 GB작가스튜디오탐방은 26일 오후 4시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자리한 정 작가의 작업실에서 진행되며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된다.

정 작가는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주제로 작가 개인의 심상과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에너지를 빛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일상적 경험에 기반한 공업용 페인트, 에폭시 레진, 건축 내장재 등의 매체를 사용하면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조형성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패널로는 김민지 독립 큐레이터가 참여해 정 작가와의 대담 형식으로 빛에 대해 천착해온 작업관과 화학 재료의 물성 등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한편 정정하 작가는 조선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20년 유·스퀘어문화관 초청작가로 선정돼 진행한 첫 개인전 이후 2회의 개인전을 비롯해 다수 단체전과 기획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608-42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광주불교연합회 ‘불교문화유산’ 학술대회

광주의 불교무형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사적 가치와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원장 이성원 교수)과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 스님)는 25일 오후 1시 30분 전남대 박물관에서 ‘2021년 빛고을 관동회,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과 광주의 불교무형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나경수 교수(전남대 명예교수·사진)가 ‘불교무형문화유산 강령과 무형문화재’를 주제로 기초 강연을 한다. 나 교수는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전승을 위한 강령의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중심사 오백나한대제의 의의와 의식’(김다빈 연구원·전남대 문화재학과) ‘불교 주불전 꽃살창호 문양에 대한 전승’(임종철 대한민국 창조명장), ‘치유명상으로 배우는 사찰음식’(지원스님·광주대 사회복지학과), ‘원효사 북장불사 조사 보고’(자운스님·전남대 문화재학과), ‘설화의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능성 연구’(송기현 연구원·전남대 국어국문학과), ‘초파일 세시풍속’(박중우 학술연구교수·전남대 호남학연구원) 등이 발표된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참여를 비롯해 광주 불교연합회 유튜브로도 중계된다. 문의 062-530-27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울 김수영문학관 인근 정원에 있는 ‘푸른 하늘을’ 시비.



오월부터 평화까지 ‘해방 76, 광주, 대한민국’

광주민예총 창작영상전, 26일 전일빌딩245

콘텐츠로 꽃피는 예술, 영상으로 만나다. (사)광주민예총인문체총연합회(민예총·이사장 박종화)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전일빌딩 245(광주일보 옛 사옥) 8층에서 창작영상전을 연다.

‘해방 76, 광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예술제는 시사화와 온라인 상영회로 펼쳐진다. 그동안 민예총이 1년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펼쳤던 민족예술제를 올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이는 것. 비대면과 대면의 매칭으로 영상을 창작하고 비대면으로 제작한 뒤, 사회를 통해 대면하는 방식이다.

이번 예술제 총감독을 맡은 김동렬은 “올해 민족예술제는 민예총의 장기간 협업으로 오월, 친일, 평화통일, 역병의 이야기를 극영화와 영상시 그리고 영상과 회화의 만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완성된 작품은 참여 단체가 기획단을 꾸려 독립적으로 작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르간 협업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사회에서는 모두 5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극단 토박이, 놀이패 신명, 극단 깍지의 ‘오발탄’은 극 무대를 벗어나 극영화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이며, 영상시 ‘선을 넘는 사람들’은 (사)민족예술단내뱃소리 외 4단체가 함께 분단 역사의 선을 넘어 통일로 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사)광주전남작가회의 ‘시로 쓰는 기록-결어 서 오월 속으로’는 5·18 주요사적지 스토리를 바탕으로 사적지를 시로 표현한 작품이다. (사)광주민족미술인협회의 ‘미술창작-10·26 탕탕탕’은 10·26은 박정희 최후의 날로 알려져 있지만, 안중



(사)민족예술단내뱃소리 외 4단체의 영상시 ‘선을 넘는 사람들’ (민예총 제공)

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할 의거의 날이기도 하다. 친일의 역사와 토착애구의 민낯을 그림과 영상으로 풀어낸다.

마지막으로 (사)전통문화예술단 굴림의 ‘무등산 천지’는 무등산국을 바탕으로 농악의 신명을

선사한다.

한편 이날 시사회는 전석 무료 초청이며 오는 12월 6일에는 온라인영상전(민예총 유튜브)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문의 062-529-115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